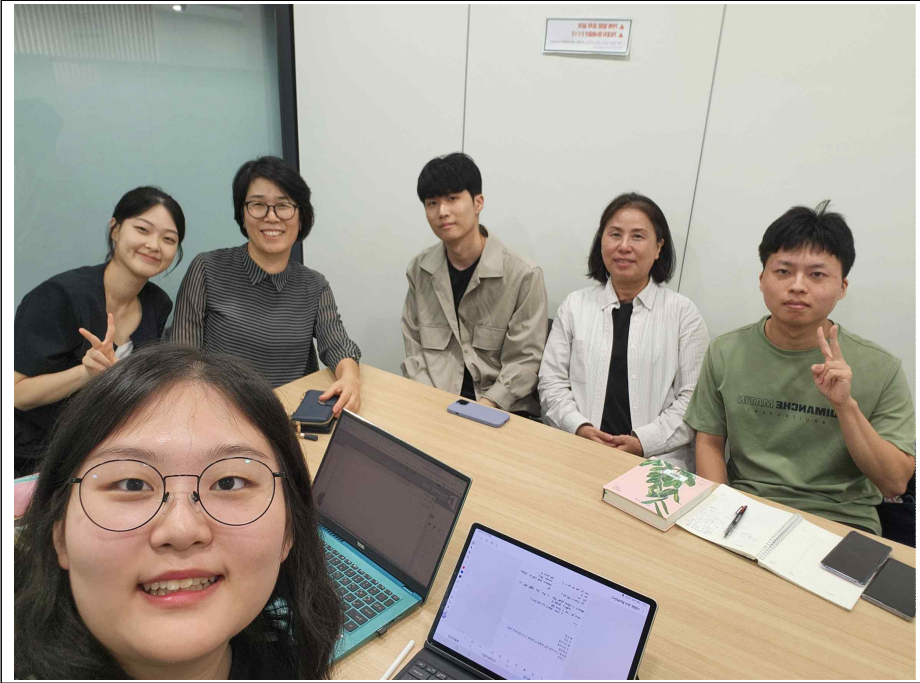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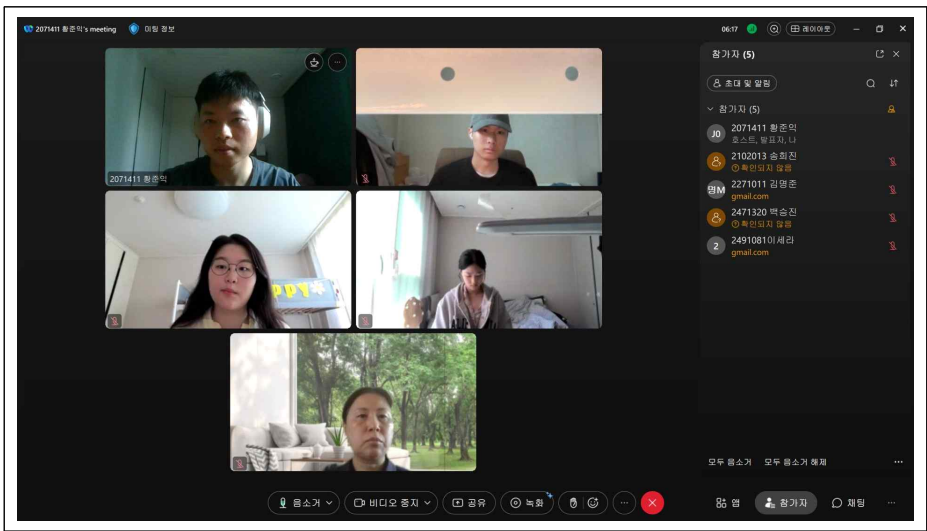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다정이네

| | | | |
|--------------|--------------------------------|---|-------|
| | 일시 | 9월 25일 16:30 ~ 17:30 상상베이스 b104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황준익(2071411) | ○ |
| | | 백승진(2471320) | ○ |
| | | 이세라(2491081) | ○ |
| 송희진(2102013) | | ○ | |
| 김명준(2271011) | ○ | | |
| 진도 | 도서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브라이언 헤어 | 진도페이지: 1p. ~ 84p. | |
| 1주차 | 토론 내용 |  <p>[백승진, 이세라, 나은미 교수님, 김명준, 송희진, 황준익]</p> <p>주제: 더 많은 편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는 책 관점에서 SNS 등의 온라인 만남은 도움이 될까?</p> <p>황준익: 사람이 친해질려면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사용해 본 입장에서는 감정을 교류하기보다 문자 자체를 주고 받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적도 꽤 있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p> <p>송: 밴드, 아이러브 스쿨 같이 가벼운 의사소통 정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너무 깊은 온라인 관계는 서로의 환상을 만들고 대면 모임으로 이러지면 너무 다른 모습 같이 환상이 깨지는 등.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다.</p> | |

| | |
|--|--|
| | <p>세라: 새로운 의사소통 가능성이 생겨서 오프라인에서 알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야를 넓힐 수 있다.</p> <p>백승진: 사람마다 필요한 의사소통 정도가 다른데 외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이라도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는 건 반대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은 현실에서 사용하는 사진을 보며 위축되며 오히려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듯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p> <p>김명준: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웠는데 그런 시기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면 sns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p> <p>결론: SNS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지만 대면에 비해서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만큼 더 가벼운 만남을 지향해야 한다.</p> |
|--|--|

| | | | |
|--------------|--------------------------------|-------------------------------|-------|
| 2주차 | 일시 | 10월 9일 14:00 ~ 15:00 온라인 화상회의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황준익(2071411) | ○ |
| 백승진(2471320) | | ○ | |
| 이세라(2491081) | | ○ | |
| 송희진(2102013) | | ○ | |
| 김명준(2271011) | ○ | | |
| 진도 | 도서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브라이언 헤어 | 진도페이지: 84p. ~ 169P. | |



[황준익, 이세라, 김명준, 백승진, 송희진]

토론 주제: 공감의 중요성

토론 내용

준익: 공감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 윌 헌팅에게 몰입을 하면 본 적이 있다. 맥과이어 교수의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에 위로받고 온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우는지 몰랐지만 생각해 보니 윌 헌팅처럼 과

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부터 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생각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스스로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공감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송희진: 공감은 치유라고 생각한다. 공감은 단순히 이해하는 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상대방의 처한 상황과 감정을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의 산물이 상대방에게 전달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감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위해 중요할뿐더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세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공감이다. 반대로 차별에 의해 정책 생기면 그 이유는 서로의 공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한다.

김명준: 공감은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팀 내에서 팀원을 파악하여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백승진: 자기가축화 인간이 동물에게 개입할 때 친화력 높이고 공격성 낮아짐. 자기가축화 중요함. 그것이 사람들을 서로 이끌게 하고 그 무리들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사회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깐.

추가 의견

송희진: 승진, 명준의 생산성 측면, 효율성 측면이 좋다진다는 것에 공감한다. 칼퇴근한다고 갈구는 끈대 상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형식적이라도 친근하게 대해주니 그런 사람에게도 더 이해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다.


이세라: 공감은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존중하는 분위기를 통해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공감이 많으면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이바지할 수 있다.

백승진: 공감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지만 사람이 자체가 긍정적이고 그런 상태면 더 관용적이고 창의성이 발현되기도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세라: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기가축화 과정 또한 약해질 수 있다. 자기가축화의 역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명준: 공감은 스트레스 해소시키지만 공감이 결핍되면 정신적으로 약화된다.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으로서 성장과 팀 내 생산성 증가 때문이다. 반대로 공감이 결여된 사회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 | | |
|--------------|--|---------------------------------|-------|
| | | | |
| 3주차 | 일시 | 11월 6일 16:30 ~ 17:30 상상베이스 b101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황준익(2071411) | ○ |
| | | 백승진(2471320) | ○ |
| | | 이세라(2491081) | ○ |
| | | 송희진(2102013) | ○ |
| 김명준(2271011) | ○ | | |
| 진도 | 도서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브라이언 헤어 | 진도페이지: 170p. ~ 197p. | |
| |  | | |
| | <p>[송희진, 김명준, 황준익, 백승진, 이세라]</p> <p>토론 주제: 지나친 공감의 부정적인 영향.</p> <p>토론 내용</p> <p>준익: 공감이 지나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지나치게 되는 원인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의견이 일치해도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텐데 자신만의 잣대가 없으면 그런 불일치한 부분도 무분별하게 받아드리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집단이 공정한지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송희진: 집단 내 강요되는 공감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렵게 한다. 공감을 강요하는 집단은 암묵적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되는 압박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어렵고 비판적인 사고가 어려울 수 있다.</p> <p>김명준: 지나친 공감은 판단력을 흐뜨려 뜨린다. 공감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친밀도를 높이면서 이점을 주는데 점점 공감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 타인의 공감에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주관이 부족해진다. 또한 지나친 공감이 피로감이라는 역효과를 발생시켜 자신의 신념이 확실해도 이를 유지하게 어렵게 한다고도 생각한다.</p> | | |

| | | |
|--|--|---|
| | | <p>백승진: 자기 가족화로 집단 내 구성원들 간 유대가 깊어지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깊어지는 만큼 타 집단에 높은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 일례로 르완다 집단학살에서 동일한 종족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되어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p> <p>이세라: 공감은 개인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이 원치 않아도 집단 내에 소외될 것을 염려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공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p> <p>토론 정리: 지나친 공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저하시키고 감정적인 피로감을 일으킨다. 이 문제점이 집단 간 집단에서 근거 없이 혐오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의견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있다고 해도 집단 내 문제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린 지나친 공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개인이 한집단 내에서만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p> |
|--|--|---|

| | | | |
|--------------|--|----------------------------------|-------|
| 4주차 | 일시 | 11월 20일 16:30 ~ 17:30 상상베이스 b102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황준익(2071411) | ○ |
| | | 백승진(2471320) | ○ |
| | | 이세라(2491081) | ○ |
| 송희진(2102013) | | ○ | |
| 김명준(2271011) | ○ | | |
| 진도 | 도서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브라이언 헤어 | 진도페이지: 197p. ~ 301p. | |
| 토론 내용 |  <p>[김명준, 이세라, 송희진, 나은미 교수님, 백승진, 황준익]</p> | | |

토론 주제: 선정 도서 완독 후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팀원들과 나누기.

토론 내용

황준익: 예전부터 인터넷, tv, 주변 사람들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들 때마다 확실한 근거는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다. 그래서 다윈은 적자생존이 아닌 다정함을 강조했던 점이 인상 깊었고 특히 다정함으로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된다는 부분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줘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다정함도 지나치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감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승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나은미 교수님께서 이 책을 선정하셔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책의 표지를 우선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다. 그때 표지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과 걸맞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사이좋게 붙어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는 에세이 형식의 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펴자마자 자연 과학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원리와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해나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이 생기더라도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연 과학 책은 평소에 흥미가 크지 않아 독서 시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터라 좀 어색하고 어려운 느낌이 컸다. 하지만, 독서 모임이라는 수행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참고 읽었다. 이 책은 내가 실제로 진행해보지 않으면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 관찰 등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만의 나열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찰해서 인류 생존에 기여한 것은 '힘, 무력' 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정함' 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펼친 주장에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신뢰도와 흥미도가 모두 높아져서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이세라: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과학적 분석에서 시작해서 사회 정치 문화적 다방면의 해결책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기에 그냥 과학 실험 정리인 줄 알았다가 좋았다.

개인적으로 제목의 한국어 의미 전달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원제인 'Survival of the Friendliest'가 번역된 제목보다 주제를 더 잘 표현한다고 느꼈고 번역된 제목은 그에 비해 와닿지 않아 아쉽다.

김명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다. 자기가축화라는 개념을 써 가며 친화력과 다정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그 이유였던 것 같다. 책의 내용 사이에 다양한 분쟁으로 예시도 들어보고,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느낌의 내용이 담긴 책은 아니었는데, 다정함과 친화력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면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송희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다정함의 양면

| | | |
|--|--|---|
| | | 성이었다. 다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만 떠올랐는데 이 책에서는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도 접하면서 다정함이란 것은 꽤나 복합적인 개념이었다. 이 책을 읽고 다정함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깨달았다. |
|--|--|---|

| 활동 후기 | No. | 클럽원 정보 | 후기 내용 |
|----------|-----|------------------|--|
| | 1 | 황준익 (2071411) | 내가 독서클럽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기는 책을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학기 중에 책을 자연스레 읽지 않으니 책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독서클럽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계기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내향적이기도 하고 집 밖으로 잘나가 지 않아 사람과의 접촉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나에겐 독서클럽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기 좋은 수단이다. 실제로 독서클럽 활동 중에 좋은 후배들과 만날 수 있었고 잠깐이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한 것에 만족한다. 반대로 활동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학과 일정이 생각보다 바빠 팀장으로서 토론 활동을 준비하는데 크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 독서클럽을 하게 된다면 토론을 기획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여 토론 시간을 팀원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다. |
| | 2 | 백승진 (2471320) | 요즘은 핸드폰 없이 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핸드폰 없는 생활을 하고자 노력을 해도 쉽지 않았다. 디지털 생활을 하면 옛날에는 잘 외우던 핸드폰 번호도 외우기 어렵고, 하나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서술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작가가 잘 서술한 표현 방식을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점에 가고, 도서관에 가서 내 손이 이끄는 책들을 여러가지 읽어보았다. 하지만, 책에도 취향이 있고 나와 잘맞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 그렇다보니 내가 책을 읽고자 해도 쉽사리 고르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책 읽기를 멀리하고 미루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 학술정보관에서 진행하는 교수님이 책을 지정해주는 독서 토론 모임을 참여하게 되었다. 선정하신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생각보다는 내가 평소에 읽던 느낌의 책이 아니어서 어려운 느낌도 들었고, 당황스러웠다. 만약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면, 다시 책장에 넣어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정해진 분량까지 읽고 첫 모임을 가졌을 때, 다른 나이, 다른 성별, 다른 상황에 놓인 조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주 다양한 생각을 듣게 되었다. 내 취향의 책은 아니지만 나와 다른 조원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점으로 책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조원분들과의 토론 덕분에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매 활동마다 다양한 관점을 체득할 수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동일한 상황과 감정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책도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을 때에도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만약 다음에도 독서 모임이 진행된다면, 그 어떠한 책이 선정되더라도 꼭 참여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
| | 3 | 이세라 | 한 책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험을 처음 |

| | | | |
|--|---|------------------|---|
| | | (2491081) | <p>해봤다.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보니 활동에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정리해서 갈 정도였다.</p> <p>토론의 과정 속에서 나는 참여한 사람들이 멋있었다. 책을 원래 많이 읽고 탐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토론에서 책의 대한 이해도 차이가 느껴졌고, 책속에 읽었던 관련 자료들을 바로바로 기억하고 페이지를 펴가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들었다. 이런 모습들이 책을 더욱 더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p> |
| | 4 | 김명준 (2271011) | <p>5명이 같은 책을 읽는 것이 혼자 읽는 것과는 다른 재미을 느끼게 했다. 동일한 책의 내용을 읽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각각 달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특히 내 기준으로 읽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서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독서클럽의 매력이고 팀원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기쁘다.</p> |
| | 5 | 송희진 (2271011) | <p>책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팀원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팀원들과 사이가 깊어질 수 있었는데 동일한 주제로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서로에게 배우려는 태도로 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교양도 쌓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즐거운 시간이었다.</p> |